



제 2148호 2020. 8. 9. **연중 제19주일**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19,9-11-13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9,1-5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14,22-33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용기를 내어라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면 봄이 어땠는지, 그리고 추웠던 겨울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워낙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를 보내다 보면 추운 겨울이 그리기도 하고, 또 한파가 들이닥치는 겨울을 지내다 보면 뜨거운 햇볕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이 그리기도 하지요. 매 계절을 지내며, 이 특색 있는 계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한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계절만이 주는 힘과 매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지구 오류동 성당
김문강 크리스토폴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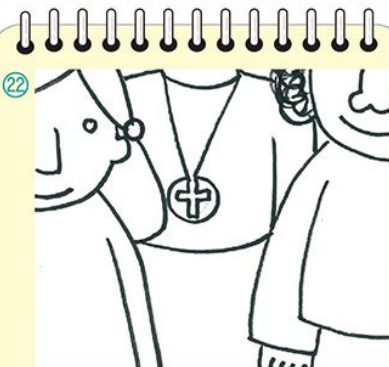
오늘 복음은 배 위에서 풍랑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다가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시어 잠깐이나마 물을 걷는 사도의 모습, 풍랑을 그치게 하는 모습이 복음에 그려지는 것이지요.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서는 훗날 죽음마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니며 이미 배웠답니다.

즉,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으셨고,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만 이루신 것들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 드러내신 모든 행동과 권능은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더욱 잘 알도록 하시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희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연중 제19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 ① 호수 위를 걸으시는 기적
- ②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 ③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 뚝뚝! 예수님, 우리 왔어요. ♥



아녜스샘의
뚜벅뚜벅
이스라엘

기적의 흔적을 찾아서

- 타볼산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 & 카나 혼인잔치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

타볼산은 이스라엘 평야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난을 앞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오르시어 거룩한 변모를 하신 곳이지요.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선했습니다.

타볼산 정상에는 그 기적의 변모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하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 같은 곳입니다. 성당 안에서 거룩한 변모의 장소로 알려진 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의 내부



타볼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야



카나의 혼인 기념 성당



카나의 혼인 기념 성당
제대와 물항아리

이동해요. 그곳에는 카나의 혼인잔치 기념성당이 있지요.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생각하며 그 상징으로 제대 뒤편에는 물동이 6개가 놓여 있어요. 성당 지하에는 당시의 상황을 연상케하는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돌항아리도 볼 수 있어요.

출처: 김안례 아녜스 선생님의 블로그 ‘꼬물락 꼬물락’

작은마음 40주년 잔치 참가 신청서

작품제목					
이름		세레명		학년 / 나이	
본당		전화번호		참가부문	
주소					

작품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및 수상작품 게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작품 뒷면에 참가 신청서를 붙여 '작은마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참가 신청서는 복사 가능합니다.

작은마음 40주년 잔치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마음'이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마음'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작은마음과 함께했었던 추억을 담아 보내주세요.

★ 주제: 작은마음과 함께한 나의 이야기

★ 대상: 작은마음을 아는 모든 분들

★ 참가부분

- 글 : 산문, 창작동화, 감상문(원고지8매 내외), 동시(2편)
- 그림 : 8절 도화지크기(형식과 재료는 자유)
- 사진 : 이미지 파일 2매(사진의 내용도 같이 보내주세요.)
- 영상 : 15~90초의 영상 파일

★ 마감: 2020년 9월 15일(화)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발표: 2020년 10월 18일자 '작은마음'주보

★ 시상: 40작품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원고와 함께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
(www.chota.or.kr) 또는 '작은마음'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보내주세요.
참가신청서가 없으면 무효처리됩니다.

♥ 온라인 접수는 littlemm1@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 메일 내용에 참가신청서의 정보를 반드시 보내주세요.

♥ 보내주신 작품의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초등부: 02-763-7966)

작품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 및 수상작품 게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초등부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